

“통일의 그날...梵音 울려 퍼지리”



◇두마리 용이 등을 맞대고 있는 용뉴는 금방이라도 승천할듯 조각이 생생하다.



◇연복사가 소실되지 개성 남대문으로 옮겨진 연복사종. 중국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섬세한 조각의 보살과 신중상.

개성 연복사종

650년전 자비·화합 '오늘로 기원' '부처님의 축복' 범어 명문 새겨져

금방 살아 승천할듯한 용뉴 봉황·거북등 몸통조각 '웅건' 삼존불부조 고려불심 상징

개성에 있는 '연복사 종'이 울릴 통일의 그날은 언제일까. 연복사 종이 주조될 때는 몽고의 폭압이 극에 달했던 14세기. 연복사 종에는 '부처님의 축복'이라는 뜻의 범어로 쓰여진 명문이 있다. '부처님 축복'이란 바로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영원한 평화를 이룬다'는 뜻이 아닐까.

고려시대의 대표적 범종 '연복사 종'을 연구한 영문학이 최근 이태녕박사(서울대 명예교수)에 의해 발굴 소개됐다. 이 책의 저자는 영문학자 故 양한성 박사(1922~1995·한양대교수).

양박사는 '고려의 평화와 안정을 기원했던 연복사 범종은 오늘날 통일된 한반도를 기다리는 한민족의 열망과 같다'는 신념으로 12년의 연구를 정리해 지난 95년 5월 영문판 'Yonboksa Bell in Kaesong, Korea'를 5백권 한정 출판해 미국 영국 등 해외에 보급했다. 그러나 양박사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이 책은 한동안 분했다가 이번 발굴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목왕 2년(1346년)에 주조된 연복사 범종은 동합금을 사용해 높이 3.3m, 입지름 1.9m, 두께 23cm 규모로 중국 종 양식을 따르고 있다. 종의 형태가 우아하고 조각이 섬세할 뿐 아니라 소리 또한 아름답고 맑아 그 여운이 백리 밖까지 울려 퍼진다고 한다. 두 마리의 용이 서로 등을 맞대고 얹힌 용뉴는 금방이라도 살아 승천할 듯 생생하다. 몸통에는 용·봉황·거북 등이 파도를 넘는 웅건한 형상으로 조각돼 있다. 그 아래 4방향으로 연화대와 삼존불이 부조돼 고려인들의 지극한 불심을 우아하게 표현해 놓았다. 당나라의 유명한 서예가 지축량의 서체로 일괄휘기한 '법륜상장(法輪常轉) 국왕천추(國王千秋) 불명중회(佛明中輝) 황제만세(皇帝萬歲)'란 4구(句)의 양자 문자를 안고 있다.

종의 허리에 있는 범어 팔부보살명(八部佛菩薩名)은 고승 지공스님의 필적이다. 범종의 글자락에는 훼손이 심한 몽고문자와 고려인으로 추정된 사람 이름(사주자인듯), 팔괘(八卦), 팔엽곡선(八葉曲線) 등이 새겨져 있다.

이태녕박사는 "복한 범종 연구서로서는 유일한 <개성 연복사 범종>은 범종을 단순한 불교문화재로 한정하지 않고 범종에 양각된 명문(銘文) 연구를 통해 고려의 관제(官制), 관민들의 삶, 원나라와의 관계 등의 역사 이면을 밝혀내고 범종을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사적 유물로 승화시켰다"고 설명한다.

종이 주조됐던 1346년은 원의 노골적인 개입에 의해 국왕의 책봉과 퇴위, 고려왕실과 원왕실과의 혼인, 정동행성의 설치 등과 같이 파란만장한 정치현상과 도시개혁 실패로 농민유랑·반란, 가뭄 등 고려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첨예화했던 시기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는 당연히 부처님 가피로 원(元)의 폭압을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故 양한성박사가 범종의 명문에 문화사적 해석을 가했던 것 또한 이러한 까닭이다.

비단 연복사 범종 뿐만 아니라 몽고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목공이며 1348년 13m에 달하는 경천사삼층탑을 세웠던 석공, 고려가요를 읊었던 시인의 마음에서 연복사 범종을 주조했던 고려인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찾을 수 있다.

고려인의 평화에의 갈망은 범자 명문 뿐만 아니라 용뉴에 명문(銘文)에서도 나타난다. 예초스님(704~787)의 <대교왕경(大教王經)>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진 이 몽골어 명문의 내용은 '자비와 화합'. 이 문구는 중국 북경의 외곽에 있는 거용관과 일본 회성사의 압삭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원이 세웠던 거용관은 다름아닌 거대한 몽고제국과 인장국을 연결했던 관문이다. 이 곳에도 '자비와 화합'을 염원한 문구가 새겨졌다.

몽골어명문 외에도 연복사종에는 범어명문이 새겨 있다. 범어권위자 유아마 아카리박사(日 국제불교연구소)가 일제시대 범어명문을 해석한 자료중 '은전정 회화계 달은 사람은/승리하리라/.../정화되어라/삼계(三界) 도처에 도사린 허상과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리라'는 내용이 있다. 고려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고난이 허상임을 깨닫고 불심을 통해 이

계 등의 역사 이면을 밝혀내고 범종을 고려를 대표하는 문화사적 유물로 승화시켰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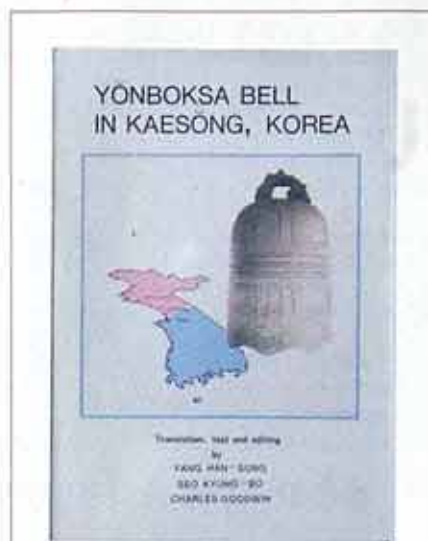
종이 주조됐던 1346년은 원의 노골적인 개입에 의해 국왕의 책봉과 퇴위, 고려왕실과 원왕실과의 혼인, 정동행성의 설치 등과 같이 파란만장한 정치현상과 도시개혁 실패로 농민유랑·반란, 가뭄 등 고려의 정치·사회적 모순이 첨예화했던 시기다.

불교를 국교로 삼았던 고려는 당연히 부처님 가피로 원(元)의 폭압을 극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故 양한성박사가 범종의 명문에 문화사적 해석을 가했던 것 또한 이러한 까닭이다.

비단 연복사 범종 뿐만 아니라 몽고와의 전쟁이 한창일 때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던 목공이며 1348년 13m에 달하는 경천사삼층탑을 세웠던 석공, 고려가요를 읊었던 시인의 마음에서 연복사 범종을 주조했던 고려인들의 한결같은 열망을 찾을 수 있다.

고려인의 평화에의 갈망은 범자 명문 뿐만 아니라 용뉴에 명문(銘文)에서도 나타난다. 예초스님(704~787)의 <대교왕경(大教王經)>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진 이 몽골어 명문의 내용은 '자비와 화합'. 이 문구는 중국 북경의 외곽에 있는 거용관과 일본 회성사의 압삭 등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원이 세웠던 거용관은 다름아닌 거대한 몽고제국과 인장국을 연결했던 관문이다. 이 곳에도 '자비와 화합'을 염원한 문구가 새겨졌다.

몽골어명문 외에도 연복사종에는 범어명문이 새겨 있다. 범어권위자 유아마 아카리박사(日 국제불교연구소)가 일제시대 범어명문을 해석한 자료중 '은전정 회화계 달은 사람은/승리하리라/.../정화되어라/삼계(三界) 도처에 도사린 허상과 고통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리라'는 내용이 있다. 고려인들이 겪고 있던 고통과 고난이 허상임을 깨닫고 불심을 통해 이



故 양한성박사 영문연구서 이태녕교수 최근 발굴 소개



◇연화대위 위의 삼존불. 고려인들의 불심을 보는듯 섬세·우아하다. 밑에는 범어명문이 새겨져 있다. 종의 4면에 부조돼 있다.

를 벗어나 자유와 평화에 도달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느낄 수 있다.

연복사 범종은 조선(1563년)에 이르러 연복사가 화재로 소실되자 범종은 개성의 남대문으로 옮겨졌다. 이후 연복사 종은 1900년대 초까지 개성 사람들이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남대문 종'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범종을 대표하는 연복사 범종은 단순한 문화재만이 아니다. 이 종은 '자비와 화합'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이루고자 했던 고려인의 정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故 양한성박사는 이 책의 서문에서 "통일이 이루어져 온 한반도에 연복사 범종이 울렸으면 한다"는 간절한 기원을 밝히고 있다.

오종욱 기자

북한의 범종 '평양종' '연복사종' 보물급 문화재로 지정

북한의 범종 가운데 국가지정을 받은 문화재는 2건. 보물급 문화재 1호 평양종과 30호 연복사종이 그것.

평양 대동문 옆 종각에 안치돼 있는 평양종은 높이 3.1m, 입지름 1.6m, 무게 12.914kg에 달하는 거대한 조선시대의 종이다. 전체적으로 균형잡힌 몸매에 용뉴의 청룡과 황룡이 종을 꼭 움켜잡은 모습이 기운차다. 종의 표면에는 형상곳으면서도 감인한 모습을 보이는 금강역사와 아름다우

면서도 날카로운 운양문, 파도문 등이 조화를 이룬다. 종을 조성한 내력을 적은 명문도 있다. 1890년대까지 이 종은 통령금지와 해제를 알리는 용도로 혹은 비상경보용으로 사용됐다고 한다.

최근 평양의 한 고등학교 공사장에서 발견된 소형의 정사명동종(높이 33.5cm, 입지름 20.2cm, 무게 4.830g). 비록 국가지정은 받지 못했지만, 옷자락을 휘날리는 비한상 2

구와 삼국시대 연화문막새기와를 발견하는 4개의 당좌 등 신라종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세부에서 변화를 주었다. 종경을 17개 연꽃으로 장식한 것이 이채롭다. 종에 새겨진 82자의 명문에 '정사(丁巳)'라는 연호가 적혀 있어 '정사명동종'으로 명명했다.

이밖에 보현사에도 금강산 유정사에서 옮겨온 조선시대 동종이 있다고 한다. 북한도 우리의 마찬가지로

국보급, 보물급, 사적 셋으로 나눠 총 176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이 중 불교문화재는 58점(국보급 19점, 보물급 35점, 사적 4점)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한다(사할문화연구원 <북한의 사할> 1993). 1971년 당시 우리의 문화공보부도 북한소재 불교문화재 총 18점을 지정해 놓았다.

윤기석 기자

법륜사 ● 대중처소 입주 안내문 ●

지혜와 소원성취는 부처님 도량에서

삼보귀의 하소서!
급변하는 사회적인 제도에 밀려 대가득적인 경쟁심과 효의 미덕이 백가족 및 물질만능시대에 가려 잠깐 성품을 잃고 하루가 일년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일찍이 실낱 시대에 나라는 고귀한 존재가 망각되며 곳곳요소마다 불안한 현실안에 잠재해 있어서 어느때 어느시 가족·형제·친구·직장동에서 갈등·고통·허무가 닥쳐올지? 우리 불자님께서는 부처님을 의지하고 마음달아 과거·현재·미래생의 삼세고를 명하시어 성불성취하소서!
급변 법륜사 대중기도처가 완공단계에 이르러 인연에 따라 수행 '수행', 고시준비생을 '입주'시켜 기도, 독경, 좌선을 통해 자신뿐 아니라 가족 및 사회에 지혜의 등불이 되었고 지치고 허무, 분노, 인간사의 고통번뇌를 이곳 가야산과 저려산이 합쳐진 산수 수려한 만대산 법륜사 대중처소에 오셔서 청정한 마음을 열으소서! 아담한 현대식과 한옥이 어울린 최고의 설계로서 욕망, 독서실 및 자재농사로 무공해 음식을 제공, 가족이 함께 기도와 심신을 맑게 하시어 다함께 성불 인도하시고 비구니 스님께서 행으로써 함께 성불하소서.

주 지: 김운봉 총무: 손자혜 합장

남·녀 총인원	65명	연령 제한 없음	
방 1실 인원	1명	소실	(*평생 수행하실분 가능함)
방 1실 인원	2명	중실	
방 1실 인원	3명	대실	
고시 준비생	약간명	시험을 앞둔 고시생 환영합니다!	
문의처	본사) 합천 법륜사:(0543)955-1379 마산) 법륜사 포교원:(0551)21-8775		
접수일	5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선착순 마감		

* 빠른시일에 접수마감되오니 미리 접수 바랍니다!
* 뜻과 불심의 행을 실천하는 가정에 삼보의 자비 총만하소서!